

배포 일시	2022. 11. 2.(수)		
담당 부서 <총괄>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경수 (044-201-4244)
		담당자	사무관 강경범 (044-201-4255)
			주무관 김홍일 (044-201-4246)
보도일시	2022년 11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항공안전체계 전면 쇄신

- 최악의 상황 고려, 안전사고위험 사전 차단 총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CEO)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 하는 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기존의 점검방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 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점검과 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한 항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

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하여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그 밖에 참석한 항공사들도 사전자율보고 확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에 준수, 운항통제 고도화, CEO부터 현장인력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하였다.

□ 회의 마무리에 원장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되는 시점에서 **변화관리가 중요하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항공안전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대청소하여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를 삼고 민·관·기타 제3의 기관까지도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까지 11개 우리나라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사별 휴직종사자 복귀현황, 해외공항 운항준비 상태 등 국제선 정상화**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 최근 안전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엔진 등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경수 (044-201-4244)
		담당자	사무관	강경범 (044-201-4255)



- 일 시: '22.11.2(수), 10:00~11:00(60분 소요 예상)
- 장 소: 국토교통부 김포 항공안전감독관 사무실(김포공항 소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21(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빌딩 210호)
- 참 석: 최고경영책임자 위주 참석
 - (우리부) 장관님, 항공정책실장 등
 - (항공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등 11개 항공사 대표이사 등
- 주요내용: 최근 잇따른 항공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안전 메시지 전달과 항공안전체계 전면 쇄신 노력 등 항공안전강화 방안 논의
- 세부일정(안)

시간	소요	내 용	비고
10:00~10:05	5분	① 개회(목념실시)	
10:05~10:10	5분	② 장관님 모두말씀	
10:10~10:15	5분	③ 대한항공 사장 안전관리 쇄신계획 발표	
10:15~10:20	5분	④ 티웨이항공 사장 항공안전 강화계획 발표	
10:20~10:55	35분	⑤ 항공사별 항공안전 강화계획 자유토론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진에어 → 에어부산 → 에어서울 → 에어인천 → 플라이강원 → 에어프레미아 → 에어로케이	
10:55~11:00	5분	⑥ 장관님 마무리 말씀	

국민의 일상회복과 함께 항공도 회복중입니다.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 하는 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할 일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 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점검과 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과 함께 지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이를 위한 안전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적항공사의 사장으로서 안전운항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대한항공 Airbus 330 항공기가 Overrun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계셨던 162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173명이 모두 안전하게 내렸으나,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기체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세부공항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시 탑승하셨던 승객과 승무원, 가족 친지분, 그리고 대한항공을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많은 승객분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여정을 마쳤고 나머지 승객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안전운항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전운항 체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어렵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난 30년동안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수준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항공당국, 공항, 항공사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한항공도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3년 동안 인명사고 발생이 없는 항공운항 기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부공항 활주로 Overrun을 비롯해 Airbus 330 항공기가 두차례 Engine 문제로 회항한 건이 발생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 확보가 회사의 최우선 과제를 전 임직원이 공감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안전저해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을 구분하여 즉시 실행할 부분은 지체없이 실행하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330 기종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A330 기단은 특별점검을 위해 순차적으로 그라운드(Ground) 시켜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A330 기재 30대 중 6대는 Phase out (퇴역) 시키고 나머지 항공기들을 5대씩 나누어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둘째,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랜기간 자체적인 노력으로 안전에 대해 전세계 어느 항공사에도 뒤지지 않는 안전관리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안전문화와 안전관리 절차 등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9월 23일부터 해외지역 20개 공항에 대해 지상조업 등 안전부문과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Reopening으로 인한 운항편 증가와 재운항을 대비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넷째,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2028년까지 총 90대의 신형기를 도입 추진중이며 (B787-9 10대, B787-10 20대, B737-8 30대, A321neo 30대 등), 신형기 도입과 함께 경년기는 순차적으로 Phase out시킬 계획입니다. (B777-200ER 6대, A330 6대)

또한 2022년에는 항공기, 엔진, 시뮬레이터 도입을 위해 약 5,400여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재 현대화를 위해 항공기 1조 4,000억원, 엔진 640억원 등 약 1조 5,0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비부문에서도 Spare엔진 확보와 사업량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비부품 도입을 위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종도에 1만 5000평 규모의 신규 엔진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 엔진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능력의 약 2배 반에 이르는, 연간 300대의 엔진을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섯째, 운항, 정비, 객실, 운송 등 안전과 직결된 인력의 확보와 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여객 국제선 사업량이 2019년 대비 약 58% 정도 회복되었으며, 운항/정비/운송 등의 인력은 전원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객실승무원의 경우에도 약 70%가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운항승무원 100명을 채용하는 한편, 객실승무원도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항승무원 120명을 비롯하여 정비/객실 부문에도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휴업에서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백기를 고려하여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능력을 갖춘 후에 업무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해서도 실제와 동일한 훈련과정을 거친 후에 업무에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Reopening 과정에서도 욕심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먼저 안전운항체제부터 완벽하게 갖춘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적항공사로서의 역할을 깊이 새기고, 저를 포함하여 임직원 모두가 절대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운항 현황 및 안전성과지표 현황

1. 국제선 운항 현황 (여객·화물, 정기·부정기 포함)

- '19년 : 10월 1,670편, '19.1~10월 누적 19,027편
- '22년 : 10월 415편, '22.1~10월 누적 2,223편 → 누적 기준, '19년 대비 11.7%

※ 노선현황 : 총 25개 노선

- **국제선(19개)** : 싱가포르, 방콕, 다낭, 호치민, 칼리보, 세부, 괌, 사이판, 오사카, 나리타, 후쿠오카, 치토세, 우한, 연길 등
- **국내선(6개)** : 김포,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부산

○ (종사자 복귀율) 총원 1,974명중 1,732명 출근(93%), 242명 휴직(7%)

구분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	기타 일반직	합계
출근	381(99%)	566(75%)	252(90%)	34(87%)	499(96%)	1,732(93%)
휴직	4(1%)	186(25%)	28(10%)	5(13%)	19(4%)	242(7%)
합계	385	752	280	39	518	1,974

○ (항공기 보유) 총 30대(B737 27대, A330 3대), 평균기령 12.8년

< 최근 주요 현안 >

- (인력 채용) 금년중 169명 채용 완료*, 내년 채용일정은 미정
* 운항승무원 25명, 객실승무원 60명, 정비 17명, 일반직 67명
- (주요 사업) '22.2월 신기종 A330 도입*, '22.5월 화물운송사업 재개**
* A330은 인천/싱가포르(주7) 주력으로 활용(평균 승객탑승률 75%)
** A330은 인천/ 시드니 12월 취항 예정 (주4회)
- (항공기 도입) '22.12~'23.1월중 B737-8(舊 B737MAX) 2대 인도

2. '22년 안전지표 현황

- (사고·준사고) 0건
- (운항안전지표) 총 4건, 1만비행당 발생률로 환산 시 1.6건
- 전체 지표 발생률(1.6건)은 국가목표치(3.3건) 이내로 양호,

※ [참고] CEO로서 올해 안전관리 방향, 안전투자 우선순위

- 올해 안전목표의 정량적 목표는 도전적으로 최근 3년 발생률을 약 43%를 감축, 정성적으로는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를 통한 사전적 중대 변화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
-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리스크를 자체지표로 선정하고 SIM 훈련과 양질의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
- (인력의 전문성 제고) 안전보안실 전원과 부문별 안전관리 담당자과 SMS 사내 강사들을 외부 전문 (교관) 교육을 이수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

2 항공기 안전 대책 강화 세부 내용

1. A330-300 엔진 신뢰성 강화

(예방정비 강화)

- 임차 엔진 도입, 엔진 주요 부품 추가 확보
- 제작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교육 강화)

- 운항승무원 대상 비정상 상황 관련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 교육 실시
- 비정상상황 부여한 모의비행장치 훈련 실시 등

2.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건 관련 동일 기종 안전 대책 강화

(예방정비 강화)

- 관련 부품인 BSCU(Brake and Steering Control Unit)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출발 전 해당 부품 재점검 실시 후 항공기 운항 결정
- 동계 주요 결함 계통(Anti Skid, Anti Ice 등) 대상 항공기 일제 점검 실시 등

(교육 강화)

- 비행자료를 분석하여 개인별 랜딩 경향을 모의비행장치 훈련에 반영하여 실시
- 악천후, 강풍 등의 상황을 부여한 모의비행장치 훈련 실시 등

3 국제선 증편 대비 안전관리 추진 사항

1. 2022년 회사 정성적 안전목표: 사전적 증대 변화관리

- 2022년 회사의 정성적 안전목표로 정하고 매달 이행실적 관리를 대표이사가 보고 받으며 직접 철저한 관리
- 국제선 증편대비, A330-300과 B737-8 신규항공기 도입, 장거리 운항 등 관련하여 변화관리 운영 중

2. 국제선 증편 등 운항회복 대비 안전관리 지침

국제선 증편에 대비하여 정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항회복 대비 안전이슈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중

- 국제선 운항 지점 대상 현장 점검(품질심사, 안전감사) 실시
- 국제선 운항 편 대상 조종사 탑승점검(Line Safety Audit) 집중 실시
- 운항 재개 전 유도로 오진입, 활주로 침범 등이 다발하는 해외공항 시각 교재 업데이트 및 교육 실시 등

※ 국제선 증편 사전준비 강화 및 안전회의체 CEO 주관으로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

- 안전 임원회의를 매주 주관하여 개최하며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운영부서 고위 안전관리자들과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와 안전투자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
- 매월 개최하는 안전회의체 후 예방지표 세부 이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직접 참석하여 이행실적 및 위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있음

3. 부문별 변화관리 세부 이행 실적

(운항/객실/통제)

- 국제선 증편 대비 선제적인 인력 충원(객실/정비/운항/운항관리/운송)
- 운항편수 증가에 따른 승무원 피로도 관리 실시
- 신규 취항, 복항 공항 시각교재(TIP) 개정

(정비)

- 해외공항별 현지 정비/조업사 재계약, 지점 SOP 현행화, 예비품 보급
- 해외 주재정비사 조기 파견 후 STATION SOP 업데이트 및 관리

(운송/화물)

- 조업인력 운영 관리 상생 방안 마련

최근 국제선 복항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각 공항 조업 인력 관리가 비상인 만큼 사전에 철저히 인력문제 파악하여 대비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하에 국제선 증편 사전 준비 실태 관리 강화

- ※ 협력업체 직원 처우(우대 항공권 TW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 제공)와 조업비용을 추가적으로 증액 지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도모

- 4분기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지점 안전감사 및 품질심사 등을 재개하여 국제선 운항증가 대비 변화관리를 강화
- 운영이 중단되었던 해외지점 정상 운영 방안 마련 지시 및 이행
- 지점장 조기파견, 조업사 업무능력 비대면 사전 점검 실시
- 복항 예정 지점 지상조업 계약현황 확인
- 운송관련 교육 커리큘럼 전면 개정 및 심화, 모든 과목에 대한 평가시행